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김 현 수*

목 차

요약	서비스철학
1. 서론	3.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공리
2. 현대사회와 정치행정시스템	4.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2.1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	4.1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
2.2 민주주의시스템 분석	4.2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 운용모델
2.3 왕정과 봉건제 관료제 분석	4.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 구현방안
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 요건	5. 토의 및 과제
3.1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필요조건	Reference
3.2 충분조건으로서의 공통원리와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기획해내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정치행정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필요조건은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공리를 제시하였다.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되었다. 두 대립자가 각자의 상호 모순을 인지하고 시공간 차원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동태적 모델이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정치, 행정, 민주주의, 관료제, 서비스철학, 인공지능

접수일(2021년 04월 10일), 수정일(1차: 2021년 05월 20일), 게재확정일(2021년 06월 09일)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1. 서론

좋은 정치행정시스템을 가진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개인과 조직은 행복도와 성취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주의 행정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 관점에서 과거의 절대왕정이나 봉건제의 특징도 다시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최선의 시스템이 아닐 수 있음을 점차 인지해가고 있으나, 인류는 여전히 더 나은 정치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제 2 장에서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민주주의와 관료주의 및 역사상의 공화정과 봉건제 등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현 정치행정시스템의 거시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자연과 인간세계의 공통진리에 기반을

둔 정치행정시스템의 기본 공리를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새 시스템은 서비스주의로 명명되었으며,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다.

2. 현대사회와 정치행정시스템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대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를 아래 그림 <Fig.2-1>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도출하였다. 즉 현재의 주류 시스템인 민주주의와 관료주의시스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 및 미래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인류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므로, 인류사회와 세계의 공통원리를 분석하여 시스템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도출 프로세스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Fig.2-1. A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Governance Framework

2.1 현대사회의 특성과 본질

정치행정의 대상이 되는 현대는 정신적 기반이 과거와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Kim, 2020). 19세기 후반에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 등이 사상에서 현대의 흐름을 만들어 낸 이후, 20세기에 들어 문학과 예술과 순수학문에서 제임스 조이스(1882-1941)와 T.S. 엘리엇(1888-1965), 이고르 스트라빈스키(1882-1971), 마르셀 뒤샹(1887-1968), 이사도라 던컨(1877-1927), 앨버트 아인슈타인(1879-1955)과 베르너 하이젠베르크(1901-1976) 등이 현대의 흐름을 만들어 냈다. 200여 년간의 산업혁명에 힘입어 과학기술 진보와 함께 인류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대중들이 보다 자유로워진 보편적 문명사회가 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현대의 진정한 주류 정신으로 부상하였다. 니체에게 ‘세계는 서로 다른 무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천차만별의 무수한 사물들의 구성’이었으며(Lamprecht, 1963), 니체가 중요시한 가치는 ‘강자에 비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칙이 있어야 하고, 힘이 아닌 정의가 지배해야 하며, 모험적인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 세력을 가지는 것(Yang, 2012)’이었다.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탈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포스트모던 사상들이 대거 탄생하였고, 더욱 구체적으로 현대적 사상체계가 구축되었다. 특히 질 들뢰즈(1925-1995)는 세계는 대립이 아닌 차이일 뿐이라는 리좀(rhizome)적 세계관을 제시하며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동등한 수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의 정신임을 강조하였으며, 알프레드 화이트헤드(1861-1947) 등은 우주 내 모든 사물들이 연결된 유기체이므로 모두 변화과정에 있고 중심은 없다는 유기체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세계관은 ‘세상은 모두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이고, 접속과 단절이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사상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

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현대의 초 연결 사회와 잘 부합하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 늘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므로, 현대 경제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20). 아인슈타인이 상대적 시공간 세상으로 변혁을 이루어 낸 이후, 닐스 보어(1885-1962)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은 상보성원리와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해내며 기존의 인과적 결정론을 혁신하는 새로운 세상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이 세상을 설명하는 과학이었던 결정론과 인과론적 법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법칙들이 현대를 열었다. 현대의 정신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정신이며, 세상과 인간에 대한 생각과 이해의 차원을 높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상보성원리와 불확정성 원리가 현대의 정신이고,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발전된 현대적 철학사상과 부합한다(Kim, 2020).

현대인의 행복을 위해 현대 정치행정시스템은 이러한 현대 정신의 기반위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임을 인정하고, 이 세상 모든 존재자의 차별 없는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도록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인과 현대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자유의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될 필요가 있다.

2.2 민주주의시스템 분석

민주주의(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대의(代議)민주주

의' 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모든 국민이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a). 민주주의는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B.C. 384 ~ B.C. 322), 키에르케고르(1813~1855), 토크빌(1805~1859) 등의 비판이 의미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야 하므로 지리적으로나 인구수로나 사람들이 서로를 알 수 있고 자신들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회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름 만큼 그렇게 복잡해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래야 그 자체가 목적인 프락시스(praxis: 실천)가 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이 행위와 다른 포이에시스(poësis: 제작(制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규모의 적정 수준이 논의된다. 또한 그는 평등의 개념을 수(사람수)에 의한 평등과 재산에 의한 평등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수를 기준으로 하는 평등은 민주주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평등은 금권정치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조금씩 다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 교육, 사람수 등 여러 주요 요소가 권력 분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사람수에 의한 민주정치가 아니고 제한적 민주정을 최선의 정치 형태로 제시한다.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이되, 민주적 양의 원리와 귀족적 질의 원리가 혼합된 정치 체제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그는 중산층이 가장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론과 지적인 행정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키에르케고르는 민주주의가 현실에 있어서 데마고기

(demagogy: 선동정치가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도로 유포시키는 선동적 허위선전)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특정 견해를 강요당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격적 진실성이 위협당하는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 새 없이 일에 바쁜 부르주아만이 아니라 역시 바빠 돌아다니면서 훨씬 더 머리가 텅 빈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함께 사회를 지배하면서 삶에 대한 진정한 실존적 태도를 몰아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간은 정치와 사회생활에서 비 본질적인 것에 빠져서 자신을 상실하기 쉬우며, 삶에 있어서 보다 깊은 관계가 상실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Skirbekk, G. & N. Gilje, 2016).

토크빌은 1830년대의 미국을 관찰한 후 그의 대표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잠재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위험을 통찰하였다. 먼저 민주주의는 물질주의를 낳는다고 하였다. 개인이 평등하게 되므로 서로를 판단하는 단순한 기준이 물질, 재산 등이 될 것이라 본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질투와 수치심을 낳는다고 보았다. 모든 시민이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다는 것이다. 가끔은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지만 예외가 규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정신이 피폐해지며 질투와 수치심이 만연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독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수 집단이 소수집단에 대해 매우 가혹하고 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주장이 옳고 우수하고 진정한 미덕이라 할지라도 해도 다수 보통사람들의 평준화 본능으로 소수는 무시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민주주의는 권위에 등을 돌린다고 보았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마음에 평등을 편애하는 악취미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약자는 강자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 편으로 너무 치우

쳐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사고의 자유를 잠식한다는 것이다. 이웃의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군중의 지혜를 순진하게 신뢰하는 경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러한 댓가를 감수할만큼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The School of Life, 2016).

현대 인류사회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제로 인한 문제들도 있다. 우선 대리인 문제가 있다. 생업에 바쁜 시민들의 정치 참여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위임하게 되는데,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 본분에 충실하기 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권한을 위임한 시민이 대리인의 이기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으므로(가끔씩 있는 선거나 회소한 국민소환제 등을 제외하면), 시민과 대리인과의 괴리는 점점 커진다. 대리인 그룹은 집단화되어 대리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더욱 힘을 강화한다. 규모가 커지고 경제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의 정치 행정 참여 비용이 점점 높아져서 참여 빈도와 참여 밀도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대리인들의 힘은 더욱 증대된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리인의 작은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시민들은 매우 큰 힘을 써야하는 등 상호 불균형이 심화된다. 시민들이 참여가 축소되면서 대리인들의 힘은 증대되고, 대리인 집단은 더욱 정치행정시스템을 복잡하게 하여 일반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행위할 수 있다. 평등이 위협받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함께 운영되는 대다수 민주주의시스템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를 태극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Fig.2-2> 및 <Fig.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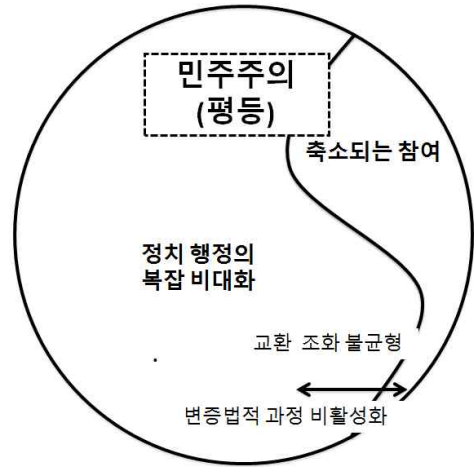


Fig.2-2. A Current Democracy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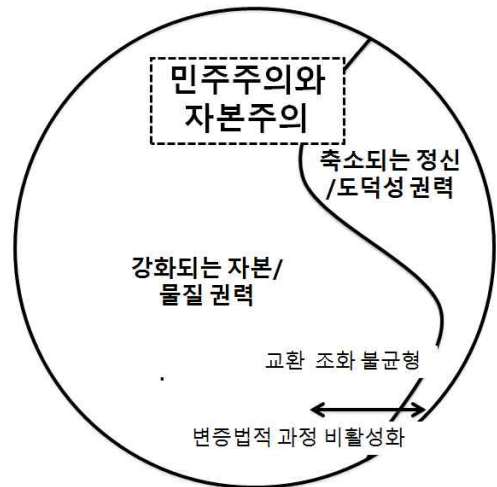


Fig.2-3. Democracy and Capitalism Model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면 토크빌이 제기한 문제들의 심각성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위 그림 <Fig.2-3>과 같이 정신 권력이 쇠퇴하고 물질 권력이 큰 힘을 가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가 오래 진행될수록 대리인 집단이 권력집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대리인 집단에 의한 독재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대리인들의 정치적 지향이나 사상에 무관하게 대리인 집단

전체가 이익을 공유하며 시민집단과 유리되고, 정치 행정이 대리인 집단의 전유물이 되는 나선형 독재화 사이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Fig.2-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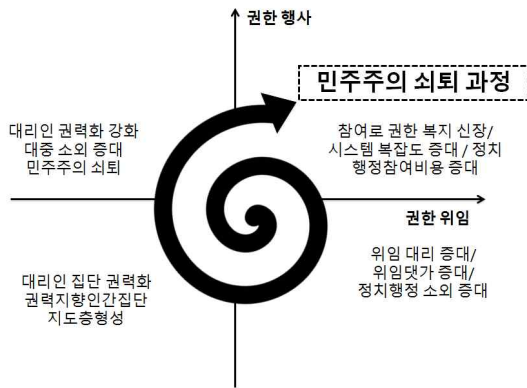


Fig.2-4. A Democracy Operation Model

또한 민주주의는 주권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큰 권한들로 인해 인간의 이기심(ego) 통제와 세상의 본질적 불확실성인 운(fortune)에 대한 통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운과 이기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본래 목적대로 작동되도록 참여비용을 줄이고 시민 참여를 늘리고, 복잡도를 낮추고, 대리인들의 집단이기주의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2.3 왕정과 봉건제 관료제 분석

세습 군주에 의한 통치인 절대왕정을 선호한 키에르케고르의 경우는 전제조건이 온정적 지배체제다. 지배하는 자들이 정의롭게 온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잘 할 경우에는 일반시민이 복잡한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일반 시민은 정치적인 소란에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적인 삶의 고양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목적이 되는 행위

에 집중하는 것이 나은 삶이라는 의견이고, 정치활동이 목적이 되는 행위일때만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배자의 이기심과 비이성이 통제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절대왕정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봉건제는 유럽식 봉건제가 분석대상이 된다. 혈연에 기초한 종법 질서를 중심으로 통제력을 유지했던 중국의 봉건제와 달리 유럽의 봉건제는 혈연이 아닌 쌍무적 계약 관계로 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영주와 농노로 이루어진 장원(莊園)을 기초 단위로 하여 각 장원의 통치자인 영주(기사)는 쌍무적 계약을 통해 상위 영주(대영주)의 가신(家臣)이 되고 대영주 또한 더 상위의 영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왕 또는 황제와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어 계층적인 가신 관계가 형성된 체제인데(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b), 쌍무적 계약관계의 체계적인 정립 역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쌍무적 계약관계의 의미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시스템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료제의 일반적 의미는 행정 권한을 가진 관료가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통치의 주체가 왕에서 시민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통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제의 성격이 크게 변화였다. 시민이 주권자가 되면서 관료제는 국가봉사 계급이 아니라 공무원적인 직능집단이 되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직능집단은 직업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공모 경쟁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관료제는 20세기에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주권국가가 그 업무를 확대 심화시킨 것이 관료제의 거대화를 낳게 되었다. 국가의 업무는 원래 징세(徵稅)와 형벌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어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달라져서, 20세기에는 경제의 규칙 설정, 사회정책, 국가에 의한 사업경영 등을 일상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도 징병과 교역을 축으로 하였던 것이 전쟁으로의 동원·수행, 세계경제 규칙의 설정이나 그것에 대한 적응, 세계적인 사업에 대한 대규모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관료제의 문제점도 증대되었다. 20세기 초 막스 베버(Max Weber)가 그린 관료제에 대한 이상적인 직능적인 유능성, 경쟁적인 관료의 인적조달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실제의 전개과정에서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c), 대다수 국가에서 관료들의 직업적 안정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관료들이 정치대리인 집단보다 오랜기간 정치행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따라서 권력 집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KBS, 2015; SBS, 2021)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을 아래에 제시한다.

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요건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으로서의 필요조건은 현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가능하려면 충분조건으로서 인류사회의 공통 운영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 도출을 위한 공리를 본 장에서 제시한다.

3.1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필요조건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은 현재의 민주주의와 관료제 시스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이라야 한다. 앞서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관료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행정권력과 국민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는데, 선거 기간이 아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거기간 중에는 선출되기 위해서, 열심히 민의를 대변하는 성

실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기심 본성으로 인해 본인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초년 정치인들은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초심은 사라지고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국민으로부터의 견제가 점점 약해지면서, 정치권력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결집과 개인의 욕망 추구가 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 권력도 마찬가지다. 권력욕망 충족과 국가사회 봉사를 위해 공직을 맡게 되는데,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를 막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다.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의 견제가 점점 약해지면서, 각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결집과 개인의 욕망 추구는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정치행정 권력을 견제하기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이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일상 생업에 바쁜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

첫째 이유는 큰 비용 때문이다. 정치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정치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급여라는 보상을 받고 활동비까지 제공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치행정권력을 견제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은 자신의 생업을 위한 수입을 온전히 삭감 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불균형이 정치행정권력과 일반국민 간에 점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

둘째, 정치행정활동의 복잡성 증대 때문이다. 정치행정활동과 업무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업무를 이해하고, 정치행정권력 견제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점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지식이 많고 다양한 정치행정 대안을 알고 있는 정치행정 권력은 일반국

민들의 자신들에 대한 견제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정치행정 권력이 자본주의 권력 및 언론 등과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성상 자본을 중심으로 힘이 결집되는 경향이 크므로, 언론도 자본지배 또는 정치권력의 영향권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영향 아래에 언론이 있으므로, 국민들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알기 어려우므로, 정보가 빠른 정치행정권력을 견제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행정권력 견제 수단도 일반국민들이 의미 있게 행사하기 쉽지 않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치행정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누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자신들을 잘 대변할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생업에 임해야 하는 시간을 희생하면서 직접적 이익이 불확실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라는 중요한 견제시스템도 헛되어 낭비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로 선출된 정치권력은 자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의권을 위임받았기에 자신의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위임 비용이 과도한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고,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의 권한위임비용이 혜택보다 작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년에 한번씩의 투표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이후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대리인 위임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현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기간이 아닌

대부분 기간 중 시민들의 견제활동에 대한 보상시스템도 필요하다. NGO나 NPO 등이 후원금을 받아 견제활동을 수행하는 지금과 같은 제한적 모델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행정권력과 자본 및 언론의 이익 결집을 표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내면적 차원에서도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 정보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의 힘이 제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잡하고 비대해지는 정치행정활동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작은 노력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치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법제도 차원에서 그리고 도덕성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3.2 충분조건으로서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은 인간이 운영하는 인간 사회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현대의 본질과 세상 공통 원리에 부합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는데,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 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덕경의 비유비무(非有非無)사상,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철학인 변증법사상 등 2원 및 3원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는 흘러감과 변해감이 중심사상이라 할 수 있다(Kim, 2019a; Yi, 2010).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공통 원리를 반영한 현대 세계의 철학은, 서비스철학으로서 아래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립존재 및 대

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도(道)가 된다. 이 궁극의 도가 서비스철학이다 (Kim, 2019a). 서비스철학의 인간관은 신 중심과 인간 중심의 균형 및 변증법적 교류 모델이다. 인간에게 작용하는 두 힘 중 순종과 은유의 힘은 신 중심 세계관을 가진 각종 종교에서 강조하는 힘이다. 이 세상에서의 길흉화복과 생로병사는 절대자의 섭리에 의해서임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절대자의 뜻이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사상을 수용하는 힘인 것이다. 다른 하나의 힘은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 존재라는 사상의 힘이다. 이 두 힘이 자신의 내부에서 조화된 인간이 새로운 사회의 인간이며, 두 힘이 시간과 공간 축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의 집합이 인류라는 사상이 서비스철학의 인간관이며 아래 그림 <Fig.3-1>과 같이 태극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Kim, 2019a).

정치행정시스템 설계에서는 인류의 역사 발전에 대한 관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역사관은 한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인식 및 주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헤겔은 변증법을 역사철학에 적용하여 절대정신의 발전과정이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는 역사관을 정립하였으며, 니체는 이 세상은 신이나 절대정신이 없는 무(nihil)의 세계이기 때문에, 역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질서 있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Yang, 2012). 헤겔식의 질서정연한 Normative 변증법에 의한 역사발전과 니체식의 무작위적 Descriptive 변증법에 의한 역사발전은 모두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서비스철학은 대립자간의 치열한 균형과 변증법적 발전 철학이므로 역사관도 아래 그림 <Fig.3-2>와 같이 태극 화쟁모델로 도시될 수 있다. 즉 역사는 절대정신을 중심 축으로 하여 이 축을 벗어났다가 다시 발전된 모습으로 절대정신으로 복귀하는 Normative한 변증법적 발전의 힘과, 무(nihil) 속성에 따라 무작위로 진행되는 Descriptive한 변증법적 진

행의 힘이 임계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 서비스철학의 역사관이 되는 것이다. 이 두 힘이 역사의 주체들에게 동시에 또는 시공간 전체에서 임계 비율로 함께 작용하면서 역사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Kim,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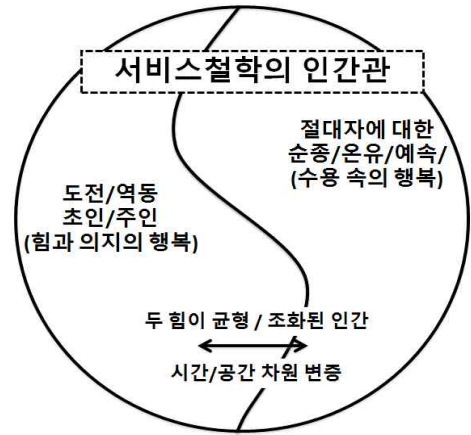


Fig. 3-1. The Human Perspective of Service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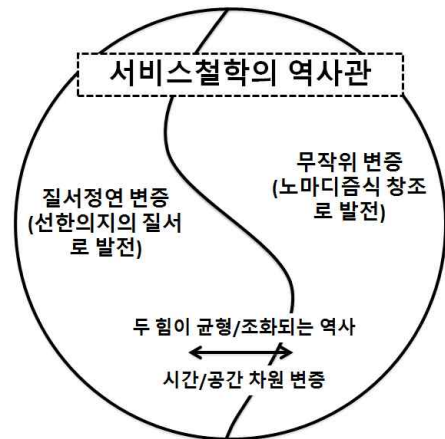


Fig. 3-2. The History Perspective of Service Philosophy

모든 세상운영의 근본원리는 공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원을 추적하면 진리가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이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

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가고 있기 때문이다(Kim, 2019a; 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인간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진리가 일치하고 일관된다면 그것은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공통원리일 가능성이 높다. 공통원리를 정치행정시스템에 반영해야 국가사회가 장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그리고 자연세계의 법칙들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설계기반이 되는 공리를 아래에 제시한다.

3.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공리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은 불변의 공리(axiom)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인류공통원리 기반의 서비스철학에 의한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공리는 Kim(2021)의 연구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공리 1]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상에서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인간사회가 서비스 네트워크이므로 위 문장은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mprecht, 1963; Yang, 2012).

[공리 2]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정치행정시스템의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국가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o-Tzu, 1982; Radbruch, 1985; Yi, 2010).

[공리(axiom) 3] 모든 것은 변한다. 정치행정시스템의 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주역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고대사상부터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사상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이므로, 정치행정에 서도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Kim, 2019a; 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공리(axiom) 4] 변화에는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 대립자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균형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을 한동안 벗어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상태가 전환되어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작용하여 크게 균형점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힘이 필요할 수 있다.

[공리 5] 인간의 내재적 욕망은 무한하다. 인간은 외부에서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욕망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 어렵고, 인간의 정신은 무한을 추구하므로 욕망에 대해서도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윤리나 도덕, 법과 제도 등의 외부적 힘에 의해 욕망추구가 제한된다(Lao-Tzu, 1982).

[공리 6] 인간사회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무질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피(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개방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 필요하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에서 그 계에 물리적인 ‘일(work)’ 을 해 줘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지러워진 책상을 정리하려면 우리는 힘을 들여 일해야만 한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d). 정치행정시스템에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공리들과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요건에 의해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이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 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4.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

서비스주의는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모든 이념을 의미한다.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된 정치행정시스템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화쟁태극구조), 운용모델(변증법적 모델), 구현방안(인공지능기반 자동전환모델)을 제시한다.

4.1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앞서 제시된 공리에 기반하여 그 구조가 구축된다. [공리 2]에 의해 정치행정시스템의 각 부문에는 두 대립자가 존재하며, [공리 1]에 의해 이 두 대립자들은 서로 연결되

어 있으며 인류공통원리에 따라 대립자 각각은 자체 모순을 내부에 가지고 있다. [공리 3]에 의해 두 대립자들의 상태는 계속 변화해간다.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면 모순이 외부로 드러나는 방향으로 변화해간다. [공리 4]에 의해 변화는 균형점을 넘어가며 계속 진행된다. 자체 모순이 과도하게 심화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또한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의해 그 구조가 구축된다. 두 대립자들간의 철저한 대칭 균형이 기반이 되며, 두 대립자가 서로 대립면을 공유하며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모델이다. 두 힘이 임계점 부근에서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과정이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완전한 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반대로 균형을 잡아가는 동태적 균형 모델이다. 서비스주의는 태극 모델이다. 대립자의 한 쪽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입장에 모순을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 반대쪽 입장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두는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주의는 화쟁(和靜) 모델이다. 상반되는 두 대립자가 서로 다른 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다른 측면임을 알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화(和)와 쟁(靜)을 번갈아 사용하는 모델이다.

새로운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의 구조는 정치행정철학, 정치행정인간, 정치행정방법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서비스주의 정치철학은 대립되는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조화정치철학이다. 개인존중과 공동체존중이라는 두 대립 가치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다. 서비스주의에 의해 대립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되는 모델이다. 서비스철학 기반이 정치행정주체들에게 공유되어 있으므로, 전환이 쉬운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철학은 아래 그림

<Fig. 4-1>과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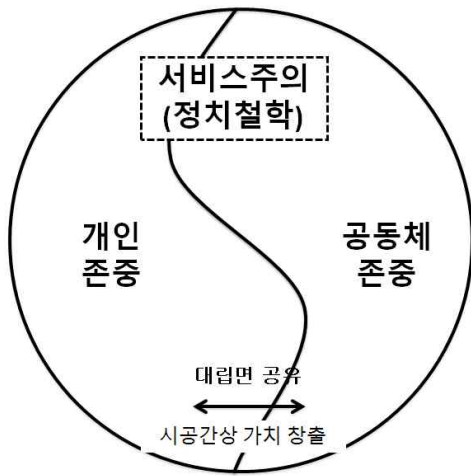


Fig. 4-1 The Servicemism on Political Philosophy

또한 서비스주의의 정치행정인간 모델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대립되는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화정치행정인간이다.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발휘하면서 권력지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형과 또 하나의 내면의 본성인 이타심을 발휘하면서 타인을 포용하며 공동체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인간형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다. 서비스철학에 의해 대립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된다. 어느 한 인간 또는 어느 한 사회에서 하나의 힘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주의의 사상적 기반에 의해 임계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정치행정 시스템이 임계점을 벗어나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계속 증대되는 모델이다. 사회적으로 내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점점 증대되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의 정치행정인간형은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은 태극구조의 화쟁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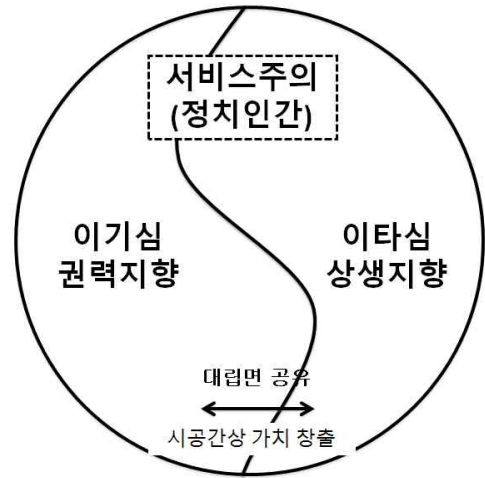


Fig. 4-2 The Servicemism on Homo Politicus

서비스주의의 정치행정방법은 직접참여비용 절감과 대리위임비용 절감의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화모델이다. 직접참여하면 많은 이슈에 개인의 의사가 개진되어 정치행정활동이 프락시스가 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에게는 큰 참여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위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리하게 하면 개인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대리인이 위임 받은 권한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에 의해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가며, 대립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된다. 서비스주의의 철학적 기반에 의해 서로 자신의 입장에 모순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반대편 대리자를 위한 포용 공간을 확보해둔 시스템이므로, 균형상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의 정치행정방법 모델은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은 태극구조의 화쟁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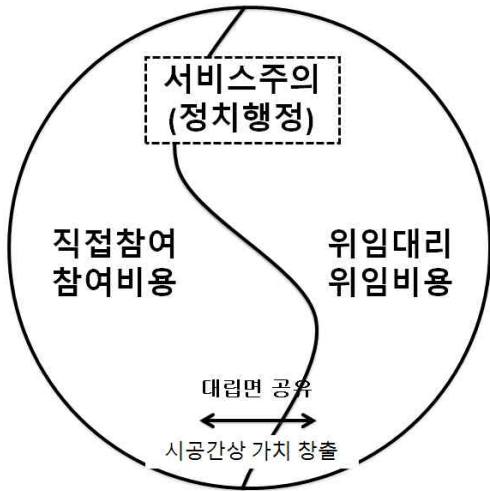


Fig. 4-3 The Servicist on Participation

즉 위임대리비용이 커지면 직접참여를 늘려 위임대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직접참여비용이 효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면 위임대리시스템의 비중을 늘려 균형을 유지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 초기에는 직접참여 비용보다 직접참여 효과가 크므로 직접참여가 중심이 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대리인들이 양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 역할을 대리하게 되므로 위임대리가 중심이 된다. 현재 대다수 국가들에서의 민주주의는 위임대리가 중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치행정 대리인(정치인과 관료)들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일반 시민과 대립자가 된다. 즉 일반 시민의 위임대리비용이 매우 커지는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작용하여 직접참여비용을 늘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 집단이 견고한 이익 공유 집단이 되면 일반시민의 직접참여가 제한되어 참여 비중 늘리기가 쉽지 않으나, 서비스주의시스템에서는 대립자들이 상호모순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균형 회복이 용이하다.

이러한 서비스주의는 확률적 차원을 수반한다. 서비스주의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상반되는 힘과 상반되는 가치의 대립면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므로 상황 변화에 따라 확률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4.2 새로운 정치경제시스템 운용모델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두 대립자들의 상호 작용이 변증법적으로 진행되는 모델이다.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시간과 공간에서도 대립자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둔 모델이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공동체를 위한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권리 존중이 살아있게 한다. 이기심과 권력지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타심과 상생지향성이 발현되도록 한다. 직접참여비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되 위임대리비용이 크지 않도록 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힘을 더 강하게 작용시키며 항상 균형과 대칭을 향해서 힘이 작용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Fig.4-4>와 같이 나선형 정반함 사이클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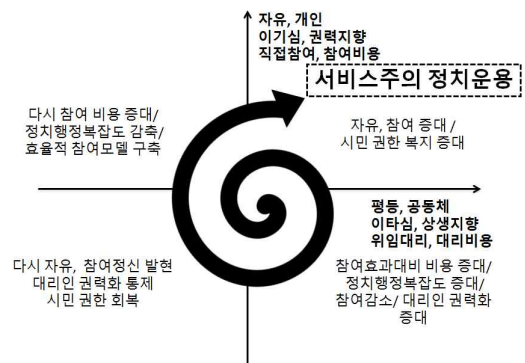


Fig. 4-4 The Servicist Operation Model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를 더 존중하며 직접적 정치 참여를 중심으로 시작한 정치행정시스템의 경우, 자유가 확대되고 직접 정치 참여가 증대되면서, 이에 내재된 모순을 인지하고 점차 평등과 위임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가는 1/4 분면 사이클에서 시작하는 경우,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증대되고 정치행정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 원리와 [공리 4]의 반작용 원리 및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공리 4]의 관성 법칙에 의해 균형점을 벗어난 시점에서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다. 평등 및 위임대리가 중심이 된 정치행정시스템으로 이전되어 상당기간 진행되는 2/4 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2/4분면에서는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평등과 공동체 중심성이 계속 강화되고 개인의 권리가 위축되면서 위임대리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다시 [공리 3]과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이전 사이클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자유와 직접참여 중심 모델을 회복하는 3/4분면 사이클로 진행한다. 다시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증대되고 정치행정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와 [공리 4]의 반작용의 힘, 그리고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다시 [공리 4]에 의해 균형점을 벗어난 시점에서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다. 공동체와 평등 및 위임대리가 중심이 된 4/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리 3]과 [공리 6]에 의해 정치행정 상황이 변하면 다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직접참여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면 다시 1/4 분면 사이클로 이동하여 다음 변증법적 사이클을 진행한다. 평등과 공동체 중심에서 시작하는 정치행정시스템의 경우에도 동일한 순환 과정을 거쳐서 변증법적 사이클을 진행한다.

현대 정치행정시스템에서는 두 대립자인 직접참여와 위임대리의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사용하여 상황을 표현하면 직접참여시스템이 절대 우위인 건괘(왼쪽 위의 3개 효 모두가 양(-)효)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위임대리가 절대 우위인 곤괘(오른쪽 아래의 3개 효 모두가 음(-)효)인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우가 리괘(왼쪽 아래에 있는 내부가 음효, 외부 2개가 양효)이거나, 감괘(오른쪽 위에 있는 내부가 양효, 외부 2개가 음효)인 경우다. 외형적으로는 직접참여시스템이지만 내면의 위임대리시스템이 받쳐주고 있는 리괘형 시스템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위 그림 <Fig.4-4>에서 1/4 분면과 3/4 분면은 직접참여 중심에서 위임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이클이고, 2/4 분면과 4/4 분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전되는 사이클이다.

이와 같은 2차원 운용모델에 추가하여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개의 차원을 더하여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 운용모델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Fig. 4-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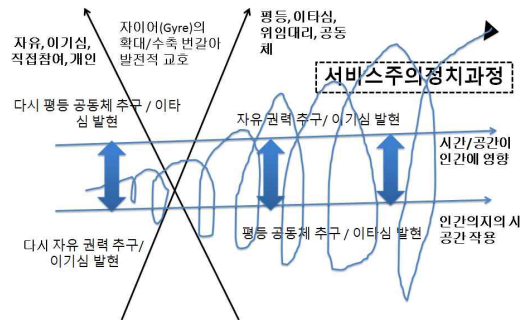


Fig. 4-5 The Servicem Operation Model on Time Space People Dimension

위 그림에서와 같이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변화되는 시공간상에서 인간의 의지를 반영하며 변증법적 모델로 운용된다. 이 운용모델에서는 5개의 힘이 작용한다. 개인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와 참여의 힘, 공동체의 힘을 중심으로 하는 평등과 위임의 힘, 시간의 힘, 공간의 힘, 인간의지의 힘 등 5개의 힘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는 모델이다. 앞의 그림 <Fig.4-4>에서 제시한 두 축의 나선형 발전 모델에, 3개의 축이 추가되어 복합된 변증법적 진행모

델이 된다. 세상공통원리에 의하여 이 복합모델은 확대와 수축을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즉 어느 한 방향으로 발전되다가 한계에 이르면 모순을 해결하는 반대방향으로 선회한다. 반대 방향으로의 선회를 미리 예측하고 선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용모델이다. 5개의 힘이 모두 독립변수이므로 두 대립자를 x 축, y 축으로 표현하고, 인간 시간 공간 축을 각각 독립적인 m , n , l 축으로 표현하면 5차원 모델이 된다. 선행연구(Kim, 20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차원 모델은 확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운용할 수는 없으므로 불확실성을 내포한 근사한 솔루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불확실성이 내포된 인공지능 기반의 정치행정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4.3 새로운 정치행정시스템 구현방안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은 이기심과 권력지향성 등 인간 본성의 한계로 인하여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간과 공간 등 관련 변수가 많고 시스템이 복잡하여 법제도만으로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기심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인간은 권력에의 욕망과 공포에 취약하여 서비스주의 시스템을 잘 운용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정치행정권력을 견제하는데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의 활용도 필요하다. 국민들이 비본질적인 정치권력 다툼에의 참여 등 불필요한 곳의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행복추구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이 내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불확실성이 가미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이 반영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로 인

한 이성성과 비이성성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Kim(2021)이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현방안에서 제시한 자연대리자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시스템이 정치행정시스템 구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대립면을 공유하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적용되는 시점과 반대쪽이 적용되는 시점을 자연대리자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특수한 상황, 즉 두 힘이 철저한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두 제도가 동일한 시스템이 된다. 두 힘의 현재 강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두 힘이 차이는 정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시스템이 내장하고 있다. 정치행정 관련 각종 지표들이 사용된다. 직접참여비용, 위임대리비용, 정치적 자유도 및 불평등도 등의 증감 수치는 물론이고 개인의 권리 및 행복도 등도 계산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과정 및 결과에 특정 집단이 영향을 미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확률시스템을 내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인간이 자연과 신 앞에 평등하듯이 불확실성 앞에서도 평등하도록 알고리즘이 구축된다.

정치행정시스템 통제 주체도 인간이 자연과 지위를 공유하도록 한다. 자연의 원리를 내장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Fig.4-6>과 같이 자연의 원리라고 분석된 알고리즘을 내장한 인공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들이 정치행정시스템 운용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증법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Kim, 2021).

자연원리의 대리자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설계는 인간의 지혜를 반영하여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의사결정 모델은 자연의 원리를 따른다. 자연의 중심 원리인 불확실성이 주요 요소가 되며, 대칭성과 조화성 등의 자연원리가 철저하게 구현된 시스템으로 설계된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 개념도 반영하여 시스템이 설계된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의 원리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된다. 인간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을 인간들의 자체 노력

으로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자연원리를 활용하여 인간들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행복한 모델로 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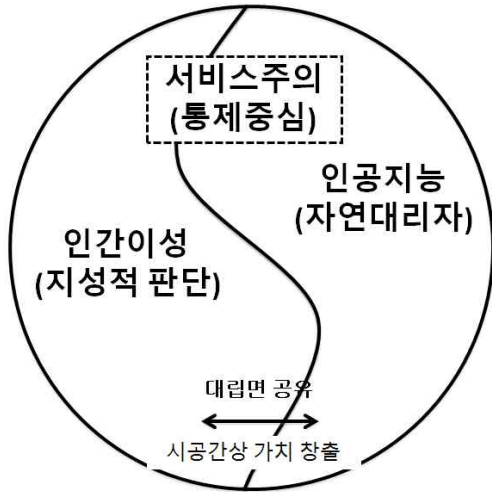


Fig. 4-6 The Servicem Control Model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는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킬 정치행정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정치행정시스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관료제 행정시스템이 인류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현대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며 사회정의와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정치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치행정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현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시스템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였다.

Reference

- [1] KBS(2015), Insight for the Future, Kim Young Ran Lecture, 2015.4.23 (한국방송(2015), 명견만리(엘리트카르텔형 부패), 김영란, 2015.4.23)
- [2] Kim, Hyunsoo (2021), A Service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1, Mar. 2021, pp.1-20 (김현수 (2021),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1호, pp.1-20)
- [3] Kim, Hyunsoo (2020), A Study on the Service Management Model as the New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2, June 2020, pp.91-108 (김현수(2020), 신경영으로서의 현대 서비스경영 모델, 서비스연구, 제10권 제2호, pp.91-108)
- [4]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 [5]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 [6]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 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 [7] Kim, Hyunsoo (2019d),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Korea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1, March 2019, pp.1-16 (김현수(2019d), 한국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1호, pp.1-16)
- [8] Kim, Hyunsoo (2017),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as the Service Economy Philosoph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7, No.3, Sept. 2017, pp.105-118 (김현수(2017), 서비스경제철학으로서의 한국고유사상 정합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7권 제3호, pp. 105-118)
- [9] Lamprecht, S.P.(1963),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Eulyou Cultureg Co., (렘프레히트(1963),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 [10]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 [11]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a), Democracy, Doosan Encyclopedia, (네이버 지식백과(2020a), 민주주의, 두산백과)
- [12]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b), Feudalism (네이버 지식백과(2020b), 봉건제)
- [13]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c), Bureaucracy,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Dictionary, (네이버 지식백과(2020c), 관료제(官僚制),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14]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Physics Stroll, Jongpil Lee (네이버 지식백과(2020d), 열역학 제2법칙, 물리산책, 이종필)
- [15] Radbruch, Gustav(1985), Choi, J. K. Tr., Rechtsphilosophie, Samyeongsa. (라드브루흐(1985),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 [16] SBS(2021), LH Breakup, 2021.3.20 News (에스비에스방송(2021), LH해체하라, 2021.3.20 뉴스)
- [17] Skirbekk, G. and N. Gilje(2016), A History of Western Thought, Yoon, Hyungsik Tr., Ihaksa (시르베크 & 길리에(2016), 서양철학사, 윤형식 역, 이학사)
- [18] The School of Life(2016), Kim & Oh Tr., Great Thinkers, Wiseberry (인생학교(2016), 김한영 & 오윤성 옮김, 위대한사상가, 와이즈베리)
- [19] Yang, Haerim(2012),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Jipmundang (양혜림(2012), 서양철학사, 집문당)
- [20] Yi, Gidong(2010), The Book of Changes Lectures,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이기동(2010),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Kim Hyunsoo (hskim@kookmin.ac.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Hyunsoo Kim*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odel of a sustainabl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will enhance human happiness. A new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over the past thousands of years. Currently, th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the bureaucratic administrative system dominate, but they are facing many problem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experienced by human society, and derived a model of a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ideal for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ies and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The necessary condition should be a model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It must be a model that is faithful to the characteristics and essence of modern society. And as a sufficient condition to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it must be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s of human society.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new system, the axioms that are the basis of the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xioms, the structure and operation model of a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were derived. The derived model was named as a servicism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It is a dynamic model in which two opposing opponents recognize each other's contradictions and balance them dialectically in the space-time dimension.

Keywords: Servicism, Politics, Administration, Service Philosophy, Democracy, Bureau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